

[민간단체 자체개발 교과서]



[民間団体開発の教科書]



□ 별별 인권이야기

- 제목: 별별 인권이야기
- 발행연도 : 2014년
- 교재개발기관: (사) 부산희망나눔 사하평생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원)
- 내용 : 문해학습자들이 학습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공동체를 통해 삶의 주인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재개발

1장: 사람과 사람	6장: 따뜻한 배려
2장: 평등한 사회	7장: 모두에게 평등한 법
3장: 더불어 사는 세상	8장: 평화의 길
4장: 자연과 사람의 공존	9장: 폭력은 안돼요
5장: 손 맞잡고 가요	10장: 일하는 사람들

□ 様々な人権物語

- 題名: 様々な人権物語
- 発行年度 : 2014年
- 教材開発機関: (社) 釜山希望分かち合い サハ平生教育院
(国家平生教育振興院支援)
- 内容 : 識字学習者が学びを通して人間の基本的権利と、共にいきっていく社会共同体を通して人生の主人公として、主体的に生きていけるように、教材開発。

1章: 人と人	6章: 温かい配慮
2章: 平等な社会	7章: みんなに平等な法
3章: 共に暮らす世の中	8章: 平和の道
4章: 自然と人間の共存	9章: 暴力はダメです
5章: 手を取り合って行こう	10章: 働く人々

소중한 인권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고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나 평등하게 이 권리를 누리고 있다면 인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누리는 권리를 나는 누리지 못한다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못 배웠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살아가면서 나의 인권이 침해 받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소홀히 하거나 한 적이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의 인권이 소중한듯이 사회구성원인 이웃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大切な人権

人権とは、人間として誰もが有し享受すべき最も基本的な権利である。

すべての人は平等に人権を享受する権利があります。皆さんは生きていく中で人権が十分に保障されていると思われませんか。

誰もが平等にこの権利を享受しているのであれば、人権は問題にならないはずです。

誰かが享受している権利を、自分は享受できないとしたら、不公平な気持ちになるでしょう。

自分が女性であるという理由で、年齢が高いという理由で、学べなかったという理由で、貧しいという理由で人権をきちんと享受できなかったら、どんな気持ちになるのでしょうか。

生きていながら自分の人権が侵害されたり、またはほかの人の人権を疎かにしていたことはなかったのか、考えてみましょう。

自分の人権が大切であるように、社会構成員である隣人の人権も大切です。

인권의 출발은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이고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인권이 무엇인지 공부하면서 나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합시다.

생각해 보기>



♥ 나의 권리와 너의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권리	너의 권리
나는_____할 권리가 있다.	너는_____할 권리가 있다.

人権の出発は、人は誰もが大切な存在であり、平等な扱い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考え方です。

そして、自分とほかの人の違いを認め、尊重する心が始まりです。

これから人権とは何かを勉強しながら、自分の権利と人の権利を尊重するようにしていきましょう。

考えてみる



♥ 私の権利とあなたの権利には、何があるでしょうか。

私の権利	あなたの権利
私は__する権利がある。	あなたは__する権利がある。

차씨네 쌍둥이

차씨 집안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이'라는 이름이고,

둘째는 '별'이라는 이름의

아기였습니다.

둘은 생김새가 비슷한 만큼

모든 것이 닮았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것도

옹알옹알 종알거리는 것도

모두 닮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차이와 차별이가 어렸을 때는

둘을 전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차씨의 쌍둥이

차씨의 집안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이」라는 이름이고,

둘째는 「비올」이라는 이름의

아기였습니다.

二人はお顔が似ている分、

すべても似ていました。

よちよち歩くのも

ぶつぶつ言うのも

すべて似ていました。

だから、まちの人たちは、

チャイ(差異)とチャビオル(差別)が

小さかったときは、

二人を全く区別できませんでした。

しかし、少しずつ大きくなるにつれ、

두 아이는 닮은 듯도 하면서
너무나 달라져 버렸습니다.
학생이 되어서
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차별이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 친구에게
너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못생기고
집이 가난한 친구들은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자신과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장애인 친구가 다리를 전다는 것과
자신이 다리를 절지 않는 것은
그저 서로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고

二人は似ているようで
あまりにも変わってきました。
学生となって
学校に通っていたある日

チャビョル(差別)は
足が引きずって歩く、障害をもっていた
友達にあなたとは友達になれないと
言いました。
そして、顔が醜く
家が貧乏な友達を
のけ者にし始めました。
ただ単に自分とは違うからでした。

しかし、チャイ(差異)は
障害をもっている友達が足を引きずっ
ていることと、自分がそうでないことは、
単に互いが違うことであると考えて

그 친구가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고
시를 잘 쓰는지 알았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차별이는
자신이 키가 작다는 이유로
도리어 다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었지만
차이는 키가 작지만
귀엽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차이와 차별은
서로 닮은 쌍둥이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다릅니다.
나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남과의 차이를 인정하
고 타인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その友達がいかに歌が上手で
詩を書くのが上手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
たので
友達になりました。

結局、チャビョル(差別)は
自分が背が低いという理由で
逆にほかの友達から
のけ者にされてしまいましたが、
チャイ(差異)は背が低くても
かわいらしいという理由で
ほかの友達から
愛される人になりました。

チャイ(差異)とチャビョル(差別)は
互いに似ている双子に見えますが
全く異なります。
自分の人権を守ることは、まさに人との
違いを認め、他人の人権を守ることか
ら始まります。